

 국토교통부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18. 7. 4.(수) / 총 10매(본문 6매)
담당 부서	국토정보 정책과	담당 자	• 과장 김형석, 사무관 최혜리 • ☎ (044) 201-3458, 3460
보 도 일 시		2018년 7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4.(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올해 771개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 원 투자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생산체계 혁신·산업 육성·기술개발 계획 담겨**

□ 올해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 원을 투자하여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반인 공간정보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및 지자체 부단체장,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위치, 경로, 명칭 등의 정보로서, 길 찾기, 택시·버스 등 교통 이용,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중이며, 최근 자율주행차량, 무인기(드론), 스마트시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융·복합의 핵심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

### ◆ '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771개 공간정보 사업 확정

□ 이번에 수립된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올해 5월에 수립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이다.

- 올해는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대상으로 3,031억 원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총 사업 수가 49건 증가한 것으로(중앙부처 5건 증가, 지자체 44건 증가), 신규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유지보수 단계로 전환하는 등 사업 예산이 소폭 감소(102억 원)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단위 : 개,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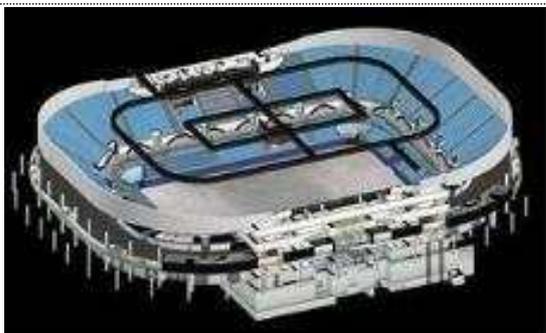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중앙부처	62	2,094	67	1,981	5	8.1%	△113	△5.4%
지자체	660	1,039	704	1,050	44	6.7%	11	1.1%
계	722	3,133	771	3,031	49	6.8%	△102	△3.3%

### < 추진실적('13년 ~ '17년, '17년 위주) >

□ 국토교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의 7대 추진전략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해왔다.

- 모바일 길 안내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18년 평창동계올림픽 24개 주요 경기장 및 시설물의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하였으며,

\* 실내공간정보 구축 성과를 활용하여 과기부가 “모바일 길 안내 서비스” 시행('18. 1.)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



이동시설(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 '공간정보 연구개발(R&D) 혁신로드맵'을 발표('17. 12.)하여 “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스마트한 국토,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비전으로 공간정보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 또한, 해수부·통계청 등 13개 기관과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을 개최(‘17. 4.)하여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도모하였으며,

\* 공간정보 연계기관: ‘15년 9개 기관 → ‘16년 23개 기관 → ‘17년 33개 기관

-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 개방을 지속 추진\*하여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자문단을 운영(‘17년 4차례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16년 수치지형도·정상영상 등 15종 무상제공 및 개별공시지가정보, 토지이용계획정보, 주택 가격정보 등 22종의 국가공간정보 개방에 이어 ‘17년 항공사진 무상 제공, 건축물 연령·용도별 건물 등 4종의 국가공간정보 개방

《 ’17년도 융·복합 데이터 개방사례 》

개방데이터 내용	사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연령지도(노후건축물)</li> </ul> <p>건축물 대장상의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연령을 산정한 후 주제도(지도) 형태로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별 건물정보</li> </ul> <p>건축물 대장상의 해당 건물의 주용도 및 관련 부속정보를 기초로 한 건물의 용도별 분포현황</p>	

-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17. 5.), 아이디어 경진대회(‘17. 5. ~ 9.) 등에서 선별된 새싹기업에 창업공간, 창업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 공간드림센터 개소(‘17. 12, 서울센터), 10개 업체에 8억 원 지원

< 2018년 추진계획 >

- 올해 시행계획에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연계·공유 효율화,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첨단 공간정보 구축,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았다.

##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 국가기본도 생산을 종전의 도엽 단위, 2년 주기의 갱신 위주에서 객체(도로, 건물 등) 중심의 수시 갱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0개 주제(경계, 건물, 교통, 수계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에 일괄적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 (2호기는 개발 착수), 수신된 위성 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 센터 건축물 설계도 금년 중 완료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공간정보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 사업('18. 5. ~ 12,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도 추진한다.

## □ 공간정보 개방·연계·공유 활성화

-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추가 수집된 공간정보 중 개방 가능한 정보는 적극 개방하는 한편, 개방하는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중요성, 활용도,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중점 품질 관리 대상 정보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공동활용 협약식 개최('18. 5.), 양방향연계 실태조사·연계계획 수립('18. 2. ~ 6.)

- 영세업자, 새싹기업 등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센터 건립도 올해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데이터 등을 별도의 구입·보유 없이도 공동의 자산으로서 사용자 간에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 □ 공간정보 기반의 공공정책 활용방안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화재취약지역 분석(소방방재청),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과제를 분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증지구 운영(안양시, 오산시)으로 폐쇄 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범인의 위치를 확보하여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고, 지진 관측을 위해 위성 위치측정시스템\* 기반의 지각 변동 감지체계 상시관측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 인공위성 신호를 지상 장치에서 수신하여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 공간정보산업 육성

-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전문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학 교당 45백만 원 → 100백만원)하고, 취업캠프·기업설명회('18. 4.), 취업 박람회('18. 5.) 등을 통해 전문 인력-기업 간 연결을 지원한다.

- 또한,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공간 정보 융·복합 서비스 자격 신설 등 자격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 기존 '온라인 교육포털'(necgis.go.kr)을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kr)로 확대 개편('18. 2.)

- 공간정보 융·복합 페스티벌('18. 5.)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속적 으로 발굴하여 우수 참가팀에 대한 보육기능을 지원하고, 공간 정보 창업 활성화 자문단의 운영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 첨단공간정보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밀도로지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도 추진된다.
  -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지속(기 구축지역 1,351km 갱신, 신규 390km 구축)하는 한편,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 및 공유를 위한 기술연구를 신규 착수한다.
  -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 작년 말 수립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 별로 기술 개발 내용, 소요금액 등을 구체화하여 올 하반기에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 □ 공간정보 제도 기반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공간정보 3법\*의 체계화 및 상호보완관계 정립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 중앙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업을 통해 정책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공간정보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이행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최혜리 사무관(☎ 044-201-34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추진배경**

-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 마련을 통해 기본계획 실행력 담보, 공간정보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정책 일관성 유지

□ **주요내용**

- (투자계획) '18년 국가공간정보사업은 약 3,031억원 규모의 771건이 추진될 예정('17년 대비 투자규모 약 102억원 감소, 사업건수 49건 증가)
  - (중앙부처) 총 67개 사업, 예산규모 약 1,981억원(국토부 1,416억원)
  - (지자체) 총 704개 사업, 예산규모 약 1,050억원
- \* 사업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중앙부처는 5건 증가, 지자체는 44건 증가, 예산규모는 사업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업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다소 감소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중앙부처	62	2,094	67	1,981	5	8.1%	△113	△5.4%
지자체	660	1,039	704	1,050	44	6.7%	11	1.1%
계	722	3,133	771	3,031	49	6.8%	△102	△3.3%

- (정책 추진계획) 제6차 기본계획 전략별 '18년도 추진계획 수립

① (기반전략)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 (생산체계 혁신) 공간정보 갱신 프로세스 개선 및 자동생산시스템 개발, 위성·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사업 효율화
- (고품질 생산기반) 측량기준체계 정비, 위성관측 서비스 확대, 건물·도로 등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모델 및 생산사양 국가표준화
- (지적정보 정확성 제고) 지목체계 개편, 도서지역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추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블록체인 기술도입 추진

**② (융합전략)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 (수요자 중심) 기관간 양방향 연계 및 과세정보에 대한 공유 협의 추진,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간정보 선별 및 관리 강화
- (공유 효율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플랫폼 제공 및 공간정보 클라우드 센터 건립 착수, 최신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확대, 서비스 유통창구 통합·일원화 추진
- (공공정책 혁신) 화재취약지역 파악 등 공간빅데이터 분석 지원, 지각변동감시체계 구축,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및 실증지구 시범 운영 등 안전생활 지원, 스마트행정을 위한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③ (성장전략)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 (교육) 특성화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사업 추진, 종합교육포털의 개편 및 확대 사업,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자격 신설 추진
- (산업육성)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 발굴부터 육성까지 패키지 지원정책 마련, 창업부담을 낮추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마련
- (기술개발) 공간정보 R&D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공유기술 개발, 3차원 실감형 콘텐츠 활용 플랫폼 구축
- (해외진출) 고위급 면담·해외로드쇼 등을 통한 진출기반 강화, 해외진출협의체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정보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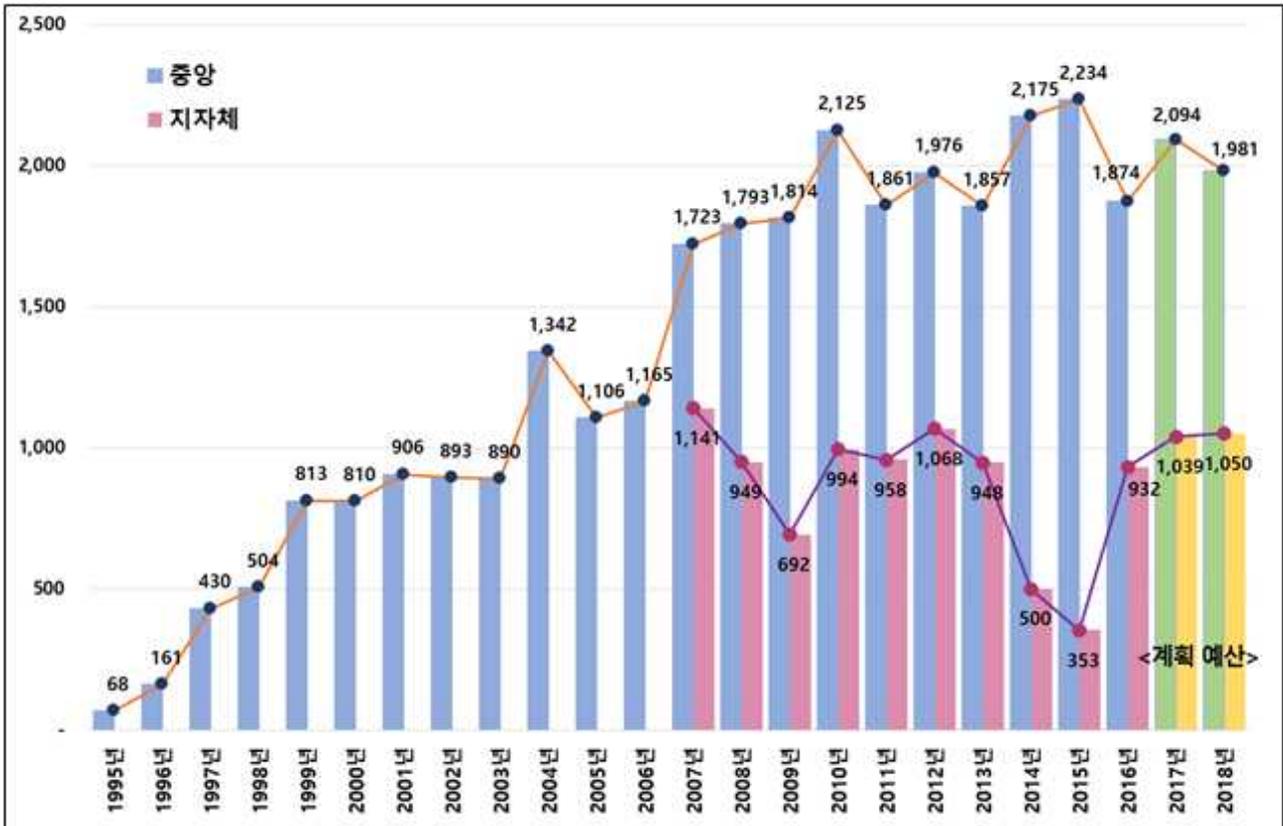
**④ (협력전략) 참여하고 상생하는 공간정보 정책환경 조성**

- (제도기반 정비) 공간정보 3법 개편방향 마련, 집행실적 평가 및 우선투자사업 선정 등 환류체계 강화
- (거버넌스) 중앙-지방간 협의체 신설, 중앙부처 과장급 협의체 구성·운영, 공간정보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18년 국가공간정보사업은 771건(약 3,031억원) 추진 예정이며, '17년 대비(722건) 제출사업 49건 증가(약 102억원 감소)

《국가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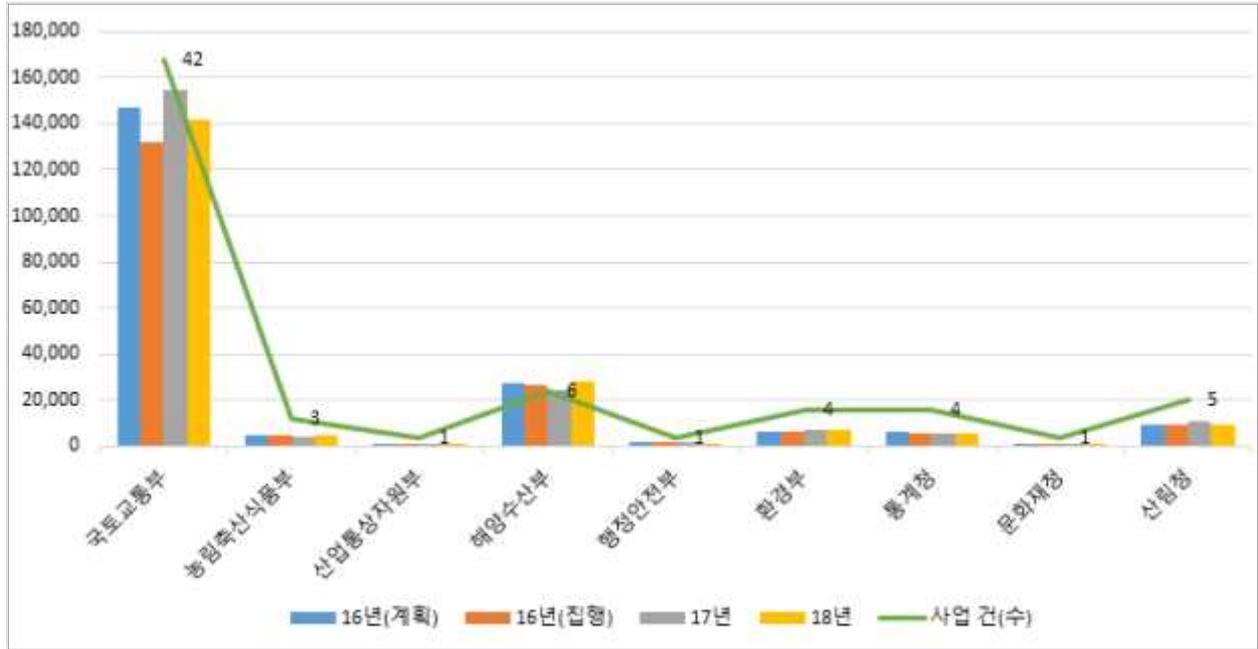


- '18년 중앙정부의 공간정보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총 1,981억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중 국토교통부는 약 1,416억원 예상

(단위 : 백만원)

관리기관	2016 계획	2016 집행	2017 계획	2018 계획
국토교통부	146,924	132,309	154,880	141,589
농림축산식품부	4,986	4,960	4,349	4,407
산업통상자원부	900	826	380	270
해양수산부	27,405	26,927	24,148	28,470
행정안전부	1,625	1,625	1,543	1,269
환경부	6,349	6,181	7,177	7,078
통계청	5,922	5,267	5,526	5,386
문화재청	240	200	340	340
산림청	9,424	9,055	11,065	9,327
합 계	203,775	187,350	209,408	198,136

《중앙부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사업 집행 및 계획 예산》



□ '18년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총 704개 사업, 예산 규모 약 1,050억원으로 예상

《지역별 시행계획 예산 규모》

